6월 들어 집단감염만 3건… 재확산 고비

제주지역 어제 하루 17명 감염… 누적 1085명
도청 어린이집·탐라도서관·유흥주점 동선 공개

제주지역에서 어린이집과 유흥주점 등을 매개로 감염이 이어지며 6월 들어 사흘 만에 3건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해 제주사회가 또다시 감염 재확산 고비에 놓였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17명(제주 1069~1085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1085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된 17명 가운데 15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나머지 2명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다.

특히 이날 기준 2건의 집단감염 사례가 생겨나면서 이달 들어 사흘 만에 3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제주시 애월읍 소재 식당에서 지인모임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 여파로 이날 3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10명이 확진됐다.

이어 제주도청 어린이집과 유흥주점을 고리로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우선 지난 2일 제주도청 어린이집 소속 교사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확진자가 담임을 맡고 있던 원아 3명이 이튿날 추가로 확진됐다. 이어 확진된 원아 1명의 가족도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누적 5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청은 n차감염이 5명 이상 이어질 경우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더해 원아의 가족이 제주시 탐라도서관 소속 공직자로 조사됨에 따라 3일 오후 탐라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퇴실조치와 함께 방역 및 폐쇄가 진행됐다.

도 방역당국은 어린이집 내에서 동일 연령대의 원아들이 놀이 공간을 공유하는 데다, 같은 시간대 식당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동선이 공개된 제주시 건입동 소재 대통 유흥주점에서 확진자가 무더기 발생했다. 이곳에선 지난 2일 5명에 이어 3일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8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유흥시설은 시설 이용 특성상 마스크를 착용하기가 쉽지 않고 환기가 어려운 사업장"이라며 "전국 각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던 사례가 많은 만큼 관련 업종 운영자 및 종사자분들은 자발적인 선제 검사로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경찰,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강화

1~2일 위반 행위 22건 적발… 6월 한 달 집중단속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급부상하면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경찰이 단속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1~2일 이틀간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결과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교차로 등에서 안전모 미착용 및 보도주행, 무면허 운전 등 총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면허 운전 2건 ▷안전모 미착용 17건 ▷보도통행 3건이다.

제주경찰은 지난 5월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6월 한달간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원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보도통행 범칙금 3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의 경우 공유 킥보드 업체는 총 5곳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킥보드는 총 1000여대 정도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근 5년동안 18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8일엔 30대 여성이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경찰은 이 여성에게 범칙금 10만원을 처분했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면허를 소지하고 헬멧 등 안전장구를 쓰게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용자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회원들이 3일 오전 제주시 탐라자유회관 경내에 있는 백마고지전투 육탄 삼용사 故 강승우 소위 동상 앞에서 추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유업 받들어 호국의지 다져야"

한국자유총연맹 제주지부 3일 故 강승우 소위 추념식

"단 한치의 땅도 물러설 수 없다. 적의 기관총 진지를 파괴하여 백마고지를 탈환하라."

6·25 전쟁 중이던 1952년 10월, 철의 삼각지 전투 중 가장 치열했던 백마고지(395고지)의 혈전에서 고지를 점령한 적 중화기의 공격으로 아군의 손실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10월 12일 새벽 강승우 소위는 소대원인 안영권, 오규봉 일병과 함께 박격포탄과 수류탄으로 온몸을 무장한 채 수류탄을 뽑아들고, 적의 화기가 불을 뿜는 가운데 육탄으로 돌진하여 난공불락의 적 기관총 진지 3개를 모두 파괴하고 장렬히 산화함으로써 백마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백마고지의 영웅 강승우 중위를 소개한 비문의 내용이다.

백마고지 영웅 강승우 소위상이 제주시 탐라자유회관 경내에 들어선지 어느덧 올해로 30년이 됐다. 그리고 올해도 그를 기리는 추념식이 마련됐다.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6·25 전쟁 71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3일 오전 11시부터 제주시 탐라자유회관 경내에 있는 백마고지전투 육탄 삼용사 故 강승우 소위 동상 앞에서 추념식을 개최했다.

유가족과 내빈,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추념식은 국민의례, 추념사, 추도사, 헌시낭송, 조총,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김양옥 회장은 추념사를 통해 "71년 전 이 땅에서 일어난 전쟁의 비참함과 참혹함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故 강승우 소위와 호국영령들의 못다 이룬 유업을 받들어 호국의지를 굳게 다져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故 강승우 소위는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출신으로 안영권, 오규봉 일병과 백마고지의 영웅, 삼군신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그들의 용맹과 위국헌신은 국군의 귀감이 되고 있다.

1973년 10월 서울어린이대공원 백마고지 삼용사 상 건립을 비롯 1989년 10월 육군 보병 제9사단 제30연대 삼군신 추모비에 이어 1991년 7월 탐라자유회관 백마고지 영웅 강승우 소위 상 건립, 2001년 6월 동남초등학교 흉상 건립, 2003년 7월 육군 보병학교 강승우 육군 중위 흉상 건립, 2012년 12월 신산공원 6·25 참전기념탑 4인 호국영웅 흉상건립 등 곳곳에 그의 숨결을 느끼게 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현충일 추념식 1분간 제주전역 묵념 사이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이 거행되는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전역에 묵념 사이렌을 울린다고 3일 밝혔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에 울리는 경보사이렌은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사이렌으로 오전 10시 묵념사이렌이 울리면 경건한 마음으로 1분간 추모 묵념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4일 금요일 음 4월 24일 (1물)

기상정보

흐리고 가끔 비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18℃, 낮 최고기온은 22~25℃로 전망된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60%	제 주	0%
60%	성 산	0%
60%	고 산	0%
60%	서귀포	0%

	해뜸 05:24 해짐 19:40	달뜸 02:04 달짐 14:05
물때	만조 06:52 19:39	간조 00:16 13:24

식중독지수 경고 / 자외선지수 매우높음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18/28℃
모레	맑음	20/28℃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전통시장 갑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제주시 어제 최고기온 30.9℃

제주 북부지역이 '푄 현상'으로 인해 올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다.

3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시의 낮 최고기온이 30.9℃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로 봐도 제주시 외도 30.3℃, 오등동 30.3℃, 대흘 29.9℃, 애월 29.8℃로 30℃ 안팎을 오갔다.

반면 다른 지역은 서귀포 24℃, 성산 24.3℃, 고산 25.6℃로 평년기온을 보였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